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페르베스 무사라프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통령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런 때에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오셔서 더욱 기쁩니다. 특히 내일은 우리 두 나라가 수교한 지 꼭 2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각하의 이번 방한이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하께서는 지난 1987년 국방대학원 교수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고, 지난해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서울공항에 잠시 머무셨을 때에도 우리 국민에게 우정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에 대한 각하의 특별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파키스탄은 각하께서 취임하신 이후 지난 4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

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5.1%에 이르렀고, 외환보유액도 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9·11테러 이후 각하께서는 용단을 내려 국제사회의 반테러 협력을 앞장서서 이끄시고, 서남아시아 지역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지난 9월에는 유엔총회에서 서방세계와 이슬람 세계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개명적 온건주의’를 제시하여 많은 공감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이 개명적 온건주의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서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세계 문명간의 대화를 이끄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과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대부터 서로 교류하며 깊은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오래 전인 4세기경 간다라 지방의 고승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파하였으며, 8세기 무렵에는 신라의 고승 혜초가 파키스탄 등지를 순례하고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파키스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유엔의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의 일원으로 의약품과 식량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가 파키스탄의 농업분야 개발경험을 배우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1983년 국교수립 이후 두 나라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최근에는 인적교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파키스탄 근로자들이 우리의 산업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오늘 체결한 ‘정보통신 협력약정’과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약정’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파키스탄과의 긴밀한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파키스탄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적극

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가고 있습니다. 2차 6자 회담도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담이 개최되면 한층 진전된 방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각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무사라프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파키스탄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영원한 우의를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